

1950~60년대 월남민의 철원 정착과 삶

Resettlement and Subsequent Lives of Refugees in Cheorwon during the 1950s and 1960s

이준희*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 철원 월남민의 정착과정과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추적하여 그들의 삶을 재현하고자했다. 한국전쟁 전후 철원 지역 인구구성과 외지인·원주민들과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철원은 일제 강점기 불이농장 건설과 금강산 관광 특수로 외지인의 유입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했고, 춘천과 더불어 강원에서 주요 지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철원이 북한 지역에 편입되면서 인공시기를 거쳤고,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개발 지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특히, 전후 철원은 군사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군인과 군인가족, 원주민(월남, 월북), 외지인 등 다양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유입되었다. 군사도시화 속 철원은 인공시기 원주민들의 갈등이 드러나기보다는 군인(군인가족)과 월남민(외지인)들 간의 관계설정에서 따라 오하러 '침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0~60년대 철원 지역 월남민들의 정착은 월남민들의 역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원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핵심어 철원, 월남민, 정착, 원주민, 군인, 군인가족, 침묵

- 차례**
1. 머리말
 2. 한국전쟁 이전 철원의 지역사회와 인구구성
 3. 전후 월남민의 철원 유입과 정착
 4. 군사도시화 속의 월남민과 사람들
 5. 맺음말

과 비교하여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북은 각각의 정치적 이념을 향해 전진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건설했고, 지금까지 그 정부는 유효한 상태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무드를 가장 반기는 곳은 단연컨대 접경지역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안보'라는 대의에 희생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저발전사회에 살아야 했다. 대부분의 지역은 군부대 경제권

1. 머리말

해방 직후 미·소 양국에 의해 만들어진 38선은 이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경계선이 되었다. 한국전쟁의 결과로 휴전선이 38선을 대신하면서 남북분단의 경계선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1945년 8월 단계의 경계선

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여기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며,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정하는 시·군은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이다. 또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국토교통부, 2016.

아래 놓여 각종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보다 농업, 자영업에 종사하며 살아왔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에 진입했지만, 접경지역 지역경제는 고도성장에서 빗겨나 있었다.

한국전쟁의 산물인 수복지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다. 특히, 강원도 철원은 행정구역의 95%가 규제에 묶여 있어 대부분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집도 제대로 못 짓는 형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고도 발전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철원이 춘천과 함께 강원도에서 가장 번성했던 모습은 폐허가 된 노동당사로 대체되어 버렸다.

수복지구이자 접경지역인 철원은 한모니까의 연구² 주목받기 시작했고, 향토사학자 김영규³가 해방 이후~1960년대 지역사를 복원하고자 철원 원주민의 구술을 채록하여 많은 공백을 메웠다. 또한 접경지대라는 특수성과 전략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논문이 제출되어⁴ 냉전과 접경지역의 특징을 포착하고 있다. 철원의 인구변동과 지역 사회 변화를 설명한 안영애의 연구는⁵ 수복 이후 철원 사회의 재편을 각종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왕의 철원 지역의 연구가 수복지구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인구구성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재구성이 통계적인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특징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철원 지역이 재구성되는 1950~60년대를 외부인의 시선에서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심화와 철원의 군사도시화는 주민생활에도 강력한 규정력을 가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안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반공은 그들의 일상이었다. 또한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대와 군인은 삶의 동반자이자 고객이었으며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과거와 함께 표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 정부 시기, 수복 이후 시기를 경험한 원주민, 월남민, 외지인으로서의 군인 등 다양한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일정한 안정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지점에 중점을 두어 월남민의 철원 정착과 삶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구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 구술자료가⁶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2. 한국전쟁 이전 철원지역사회와 인구구성

일제 강점기 철원은 경원선이 지나고 금강산철도의 시발점,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 평북 초산군 초산면에 이르는 3번 국도가 만나는 곳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했고 철원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다. 1926년 조선총독부에서 강원도청 이전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철원 번영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도청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⁷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만큼 철원은 강원도에서 춘천과 버금가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鐵原郡誌』는 다음과 같이 과거 번영했던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2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3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철원주민 20인의 구술사』, 진인진, 2018; 『6·25 전쟁과 철원』, 주류성, 2020.

4 김중곤, 「1960-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경관: 강원도 철원지역 '재건촌'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25, 한국사회사학회, 2020; 정근식·김하정·이재용, 「재건촌 생장리의 형성과 마을 정체성의 변화: 생태마을과 김하 노스텔지어 사이에서」, 『사회과학연구』 59(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정근식·공민우, 「통일촌 유곡리의 조성과 정과 공동체적 협력의 난점들」, 『지방사와 지방문화』 23(1), 역사문화학회 2020; 신진숙, 「철원의 문화적 재현을 통해 본 접경도시의 정동적 지형학」, 『통일인문학』 8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2020.

5 안영애, 「철원지역의 생활동태: 수복 후의 철원지역 변천」, 『綠友會報』 10,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1968.

6 김영규 외, 『2007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철원군 지역사 자료 조사수집 최종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7; 역사와공간연구소, 「철원지역 구술자료」,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2017. 2023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과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음(<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4>).

7 「도청이전을 맹진적으로 운동」, 『동아일보』, 1926.2.15.

〈그림 1〉 철원의 상가



출처: 김지나 외, 앞의 논문, 116쪽 재인용(철원문화원 소장 사진)

이 고장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원선의 중심지와 금강산전철의 시발역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철원평야의 수리시설이 잘된 미곡생산의 곡창지대이며 또한 각종 농축산물의 집산지였으며 비교적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하고, 인심도 좋고 교육열이 강했던 곳이었다.⁸

철원은 점차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고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인이 급증하여 일본인 증가율이 조선인을 앞설 정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일본인 증가로 인해 급수시설,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자연스럽게 확충되어 상권의 확대와 상업활동을 보조하는 금융기관 등이 설립되었다.⁹ 1920년대 일본인의 유입으로 철원은 도시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금강산관광의 시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시내의 변화한 거리에 상점이 즐비하고 역 주변 상권은 번창했다. 태평양전쟁 이전 금강산관광은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겨질 만큼 인기 있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금강산철도의 출발지인 철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철원지역의 도시화는 일본인들의 유입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금강산관광이나 교통의 요충지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원에 불이농장이¹⁰ 설립되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도시로 변모했던 것이었다. 불이농업회사는 철원군 일대에 8,800정보(약 26,400,000평)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조선총독부의 원조 아래 소작인을 모집했다. 그 인원수는 〈표 1〉과 같다.

〈표 1〉 1924년 불이 철원농장 소작인 규모

지역	戶數	人員
경북	120	520
함남	25	150
황해	70	350
평남	25	100
강원	5	35
경기	5	20
충남	5	20
경남	3	10
평북	15	79
충북 기타	17	-(인원수 표기 안됨)
합계	300	1,284

출처: 「옥도를 버리고 황무지로 철원불이농장으로 몰려오는 천여농민」, 『동아일보』, 1924.5.5.

10 일본인 거대지주인 불이농업은 서울 본사를 거점으로 전국에 전북농장, 서산농장, 옥구농장, 불이농촌, 철원농장 등 총 4개의 농장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불이농업의 철원지역 농장이 불이농장으로 불려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인으로 조선인들이 일했다. 하지만,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참조.

8 철원군, 『鐵原郡誌』, 철원군, 1992, 301~302쪽.
9 김지나·조경진·박한솔, 「구철원 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7.6, 114쪽.

〈표 1〉에서와 같이 전국의 약 1,300여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철원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철원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외지인이 정착하는 경우는 상업활동을 제외하면 소작인들이 유입되었다. 1778년 철원 인구가 15,374명에서 1941년 86,915명으로¹¹ 약 150년 간 인구가 급증한 것은 철도부설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불이 철원농장 등 일본인의 유입으로 인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종사하는 인원의 유입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원주민의 비율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철원은 강원도내 중요 거점 도시로 성장하면서 도내 중점 도시로 역할을 했다. 철원의 주민들은 강력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도청 유치에 힘을 쏟았다. 또한 불이농장의 설치에 전국 각지의 인구가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철원은 강원도에서 중요한 도시로 위치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철원은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해방 직후 철원에 중도적 성격을 가진¹² 건국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8월 27일 소련군이 진주하자¹³ 어운면 등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 고장에는 몇 사람의 공산주의자들의 쇄뇌공작에 의해 제일 먼저 어운면지역에서 많은 열성 당원들이 배출되었다.¹⁴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38선에 의해 철원은 북한 행정조직에 의해 북강원도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어 남한의 춘천

11 철원군, 앞의 책, 386쪽.

12 『철원군지』에서는 해방 초기 철원의 건국조직을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계열이 주도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철원군에서 발행한 점을 상기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철원의 도시화로 인한 상인층의 증가와 불이농장 운영으로 인한 농업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혼합된 인구구성을 고려한다면 중도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해방일년일지」, 『동아일보』, 1946.8.15.

14 철원군, 앞의 책, 302쪽.

을 대신하여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강원도의 주요 도시였던 철원은 북강원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 철원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도청 이전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강원도의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유입되었다.¹⁵ 각종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설치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철원으로 몰려든 것이다.

철원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인공시기’로 기억하며 부정적인 표현으로 회상한다.¹⁶ 대체로 이들의 구술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부농이었던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쫓겨났으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한다. 또한 몇몇 월남자 원주민들은 북한의 민주개혁 조치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한 ‘투사’ 또는 ‘소극적 저항’을 주요한 경험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鐵原郡誌』에서도 이 시기를 ‘사과’와 ‘토마토’가¹⁷ 공존하는 시기였으며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은 ‘사과’라고 여기며 반공행적을 하나의 장으로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치단 출신을 강조하고, 당시 ‘저항’과 관련한 기록을 대대적으로 남기며 반공적 서사를 재생산하고 있다.¹⁸ 비록 해방 당시 북한의 영토에 자신들의 고향이 포함되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사회주의사회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강요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했거나, ‘소극적 저항’을 통해 그들의 개혁방향을 흐뜨려 놓았다고 구술한다. 또한 소위 ‘공산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과로서 그들을 파괴하려 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다.

철원이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원주민들과 이

15 RG242, SA2007, Item#50, 박준하, 『비망록』, 북조선 노동당 강원도 철원군 당부, 1950.

16 김영규, 앞의 책, 이원준 구술(2007년 12월 11일); 안승덕 구술(2007년 11월 8일) 등.

17 당시 사과와 토마토는 같은 돌 다 붉으나 속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붉은 것을 말하는 가짜 공산주의자, 진짜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8 철원군, 『제17편 반공투쟁』, 앞의 책, 2017~2057쪽.

주민들의 권력관계는 북한권력의 친밀도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산주의자 또는 간부들은 원주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갖기 쉬웠으며 기존의 지방유력자의 경제기반을 민주개혁 조치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였다. '인공시기' 철원에서 이주민이란 일제 강점기와 같이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권력이 도래하는 것이었다.

3. 전후 월남민의 철원 유입과 정착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툭날전쟁'으로 인해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접경지역인 철원은 '툭날전쟁'을 빚겨나갈 수 없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전까지 북한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이후는 '피의 복수'가 이 지역을 휩쓸었다.¹⁹

한국전쟁 당시 철원은 이전시기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월남 또는 북으로 피난 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상당 수는 국군과 자치단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전선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번 반복하게 했고, 소위 '빨갱이'는 처벌 대상자였고, 고향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잔류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수시로 증명해야 했다. 당시 국군에서도 부역자 처단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고 이들을 분류하여 처벌하였다. 생존을 위한 자기증명이 일반화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군경 낙오자들 중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지하에서 적과 투쟁하여 오는 사람과 둘째, 자기 생명만 보전하고자 도피에 하였던 자와 셋째, 적에 끌려서 합작을 한 자가 있는데 그 중 지하투쟁자와 피신자는 될 수

있는데로 포섭 기용할 방침이나 적과 같이 행동을 취한자는 추호의 용허도 할 수 없이 처단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문화인 기타에 있어도 선기에 준할 것이며 특히 악질행위자는 추호의 용허도 할 수 없다. 더구나 괴로군 침습 당시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 나간 사람은 선처 할 것이다.²⁰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군경 낙오자를 나눌 만큼 군부 내부에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전선의 잦은 변화와 전황의 악화가 만들어 낸 문제였다. 더구나 철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피(북으로 피난)한²¹ 사람들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 이동이 잦아 실제로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복지구인 철원은 1951년 봄부터 유엔(UN)군이 군정을 시작하여 유지하고 있었고, 유엔군 점령 지역에서도 38선 이북 지역 강원도 7개 군, 경기도 2개 군 가운데 양양군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계엄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민은 모두 소개 당했고 일반 민간인은 접근이 금지되었다.²² 철원에서 소개 당한 원주민은 북피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전쟁 중 도피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북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보다 노인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²³ 군정은 이들을 매일 100여 트럭씩 서울 노량진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²⁴ 이 지역에 잔류했던 많은 사람들은 건강 이상을 보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원주민 소개 작전 결과 원주민 출신 미군 KSC(Korean Service Corps)와 군인만이 이 지역에 남게 되었다. 이후 군정이 직접 이 지역을 관리하

²⁰ 「부역자 엄중 처단 쌀 반입에 부심 중」, 『동아일보』, 1950.10.11.

²¹ 임응재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내대리에서 북피한 사람은 약 80%에 달한다고 한다. 김영규 외, 앞의 책, 임응재 구술(2007년 12월 11일).

²² 김귀옥, 「분단선 위를 걷는 사람들」,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60쪽.

²³ 「철의 삼각지대 난민 대부분이 환자 속 남하」, 『동아일보』, 1951.6.24; 「행정당국의 맹성추구」, 『동아일보』, 1951.7.11.

²⁴ 「행정당국의 맹성추구」, 『동아일보』, 1951.7.11.

¹⁹ 김영규 외, 「3장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가족이 희생된 사람들」, 앞의 책, 2007.

면서 철원은 점차 군사도시적 성격을 가진 접경지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1954년 11월 유엔군으로부터 수복지구 행정권을 이양이 예정되자 정부는 1954년 3월 수복지구 귀농선을 철폐하여 주민들의 복귀 신청을 받았다. 복귀 신청을 한 사람들은 원주 등지에서 수용소 생활을 계속하다 1954년 11월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다.²⁵

그동안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수용소 생활을 계속 해오던 4600세대(25000여 명)의 농민들이 금단의 38선을 넘어 꿈에도 그리던 정든 고향땅을 찾아 38 이북 수복지구에 귀농케 되었다 함은 기보한바 있거니와 국군 제5군단에서는 미 제8군단 사령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11일 동군단 관한 전역의 귀농선을 철폐하고 군정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는 한편 동일부로 복귀농민들의 등록 접수를 개시하였다 한다. 동당국자 담에 의하면 이번 농민들의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은 주로 포천, **철원**, 금화 등 제5군단 관할지역이라는데 복귀할 농민은 관할 군단장이 발행하는 여행증만으로서 수복지구의 출입을 자유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영농할 경작지는 1. 과거의 소유권자 2. 군에 의해서 몰수당한자 3. 6.25 전거주실적이 있는자 4. 경작을 희망하는 월남피난민 등의 순서로 반환 혹은 대여할 것이라 한다.**(강조는 인용자)

위에서 보이듯이 철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 부재지주, 원주민, 월남민이었다. 철원에는 경기도에서 복귀 조사를 실시한 바 1,343세대 7,040명이 신청하여 이주했다. 1941년 약 8만 여명의 인원 가운데 약 10%가 복귀 신청을 했다는 것은 북피난 사람과 전국에 소개되어 있는 철원 원주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철원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구성하는 지역에서 새롭게 지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²⁶ 이 때 월남민들은

철원을 비롯한 각지에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귀농정착촌, 도시, 피난수송선 도착지 등 전국 각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월남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전 월남민과 이후 월남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 월남민은 북한의 민주개혁에 불만을 품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과 이념적 갈등 등으로 인한 월남, 생활고에 의한 월남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월남민은 戰火를 피해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모두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정착하는 지역과 생계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²⁷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착촌을 마련하여 이들의 정착을 유도했다.²⁸

철원의 경우 정부가 수복지구의 지역 정상화의 일환으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바 원주민의 복귀와 토지 소유권의 공백상태를 월남민으로 채우면서 경작을 유도하여 인구의 증가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정부가 “경작을 희망하는 월남민”을 복귀인원에 포함시키면서 전국 각지에서 월남민들이 몰려들었고, 식량난, 생활고에 허덕이는 월남민들은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부는 수복지구에 월남민들을 유입시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들을 자생할 있도록 도와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월남들에게는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이승만의²⁹ 경우 여수로 피난해 전라도에 약 3년간 거주했다. 1955년경 정부에서 포천으로 이주시킨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과 미군 트럭을 타고 의정

로 보고 있다. 「강원도 수복지구의 재건보」, 『경향신문』, 1955.11.18.

27 월남민의 남한 정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성보 편,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 정착, 자원, 사회의식』, 해안, 2019.

28 1945~1960년대 한국 난민과 정착사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아람, 『난민, 경계의 삶』, 역사비평사, 2023.

29 역사와공간연구소, 「이승만 구술자료」(2015년 11월 18일 구술),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2017, 26쪽.

25 「고향 찾아드는 농민 수복지 귀농선수철폐」, 『동아일보』, 1954.3.13.

26 1955년 11월 『경향신문』은 강원도 수복지구 인구 중 원주민의 비율을 1/3

부에 도착, 철원 이평리로 왔다고 한다. 그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경작지를 주고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철원 땅에 개간을 할 사람들을 대거 모집하여 이주시킨 것으로 보인다. 군용천막 1개 동에 20세대가 생활했다고 한다. 그는 “수복지구 간다니까 땅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라고 말하면서 결국 생산수단이 전무하여 빈곤한 상태를 극복하고자 수복지구로 향한 것이다.

당시 미군이 주를 이루며 민간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간을 시작한 이승만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일구었으나 기존 소유권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빼앗겼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인정하지 않고 해방 이전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있어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³⁰ 철원 이평리 지역행정을 포천군 관인면장이 대리하고 있을 만큼 안정적인 행정권도 유지되지 않았다.

당시 철원에는 황해도 사람들과 이북 5도민들이 종종 있었고 이북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살았다고 증언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피양촌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인데 당시 그들은 불이 철원농장에 소작인으로 농업노동자화 된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어 살았지만 이들은 월남민으로서로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철원에는 평안도촌, 경상도촌과 별개 이름은 없지만 냉정리, 이평리, 장평리, 이평4리에 연백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한다. 월남민들은 한국사회에 연고가 없다는 공통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를 구축한 것이었다.

한편, 개인의 노력과 개간을 통해 이룬 경작지도 있지만 미국인의 도움으로 세운 난민정착촌도 있었다. 1955년 11월 ‘제대장병보도회’라는 단체에서 많은 상이용사를 포함한 사람들과 월남피난민 등이 규합하여 농지를 개간하고 경작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동온리(현재 철원군 갈말

읍 군탄리) 일대의 약 200정보의 황무지를 발견하여 개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60여 세대가 토굴 속에서 잡곡과 저류를 생산했고, CARE본부 그라함 프렌치(Graham French)에게서 농기구와 종곡을 원조 받았다.³¹ 이 때 제대군인과 피난민이 합작하여 철원난민정착장을 만들었다.³² 당시 세대구성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신철원읍 동온정착사업마을에는(철원난민정착장) 200여 동의 집이 있다. 105세대 508명 60세대 제대군인 가정. 상이군인가정 4세대.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 41세대. 이 장 오 석 근 (3 0) 제 대 군 인 . ^{3 3}

이 난민정착장에는 월남민이 41세대 약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월남민들은 제대군인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거처를 만들고 생산수단을 획득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보면 1954년 이후 철원에 유입된 원주민과 월남민들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철원에 돌아온 원주민들은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토대로 농경을 유지하거나 군인을 상대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철원군 인구의 약 1/3정도를 차지했지만 주요 행정직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제대군인과 월남민은 이주민으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획득하여 생활안정을 추구하고, 정부의 노력 보다 당시 원조에 의한 자립을 얻고자 했다.

전후 약 10년간 월남민들은 안정적인 생산수단이 부재한 관계로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수복지구로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복지구의 남·북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1 그라함 프렌치는 10,000달러를 CARE에 기부했고 이 자금은 농기구, 비료, 종자, 소 등을 구매하여 철원난민정착장에 보내졌다. 그라함 프렌치는 이 외에도 한국 상이용사 재건촌, 남베트남 재건촌, 필리핀 상이용사 재건촌 등에 10,000달러씩 기부하였다. “FOREIGN AID: Life for New Chorwon”, *TIME*, Apr. 06, 1959, p.21(<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810869,00.html>).

32 「미국인이 세운 한국인 마을」, 『동아일보』, 1959.4.6.

33 위의 기사.

〈그림 2〉 철원난민정착장



출처: 「미국인이 세운 한국인 마을」, 『동아일보』, 1959.4.6.

향했다. 또는 정부의 집단 소개정책으로 인하여 수복지구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정착하는데 있어 토지 개간은 중요한 수단이었고, 정부는 이들 이주민들을 통해 지역의 정상화를 꾀했다. 1950년대 철원에서 월남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4. 군사도시 속의 월남민과 사람들

철원은 접경지역으로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1950~60년대 철원지역 인구구성은 원주민이 1/3이고 외지인이 2/3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⁴ 이들은 서로 다른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다. 당시 군인은 강력한 권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군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주요 고객이었다. 또한 군사화된 이 지역은 제대군인들 특히 월남한 군인들이 철원에 정착하면서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주민 구성의 과거를 살펴보면 원

주민으로 월남했다 돌아온 사람, 월북민가족(전쟁시기 고향에 있었던 사람), 월남민, 군인과 군인가족, 고철을 모으거나 생계를 위해 들어온 외지인³⁵으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전쟁을 거치며 다양한 과거를 경험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념적 성향을 판단 당했다. 그 우위에 과거 출신과는 상관없이 현재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가 가장 우위에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당시 수복지구 ‘보호자’였던 군인들은 ‘빨갱이’를 운운하며 주민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주폭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이 군인들에게 구타 당했다.³⁶ 한 경찰은 “군인을 말할 수 없음”을 토로할 만큼 군인들이 갖는 이 지역의 권력은 막대했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 개간에 의해 토지경작권을 획득할 때에도 군인과 군인가족, 지인들이 특혜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³⁷ 원주민, 월남민 등에 관계없이 군인과 군인가족에게 경작권을 우선 분

³⁵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에는 많은 고철이 묻혀 있었고 고철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점차 고철이 줄어들고 지뢰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철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안영애, 위의 논문, 1968, 146~147쪽.

³⁶ 「사병들 집단행패」, 『동아일보』, 1966.1.5; 「방첩대원들 민간인 못매」, 『동아일보』, 1966.6.17.

³⁷ 「귀농선시비복상하겠다 “못한다” 농민군과 맞서」, 『동아일보』, 1964.5.19.

³⁴ 안영애, 위의 논문, 1968, 146쪽; 한모니까, 앞의 책, 2017, 407쪽.

배하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성에도 불구하고 철원에서 군인들의 독주는 계속 되었다.

이러한 철원지역의 분위기는 일상에서도 연속 될 수 있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빨갱이’는 월남민, 월북민 가족, 원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특히 월북민가족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³⁸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연좌제는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했다.

인구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구성은 기존의 지역사회 유지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고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있어 ‘유지’는 기왕의 개념과 다르게 ‘권력’을 가진 즉, 군인과 제대군인 등으로 귀결될 소지가 높았다.³⁹ 실제로 제대군인들이 행정부에 편입되면서⁴⁰ 지역 유지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월남민은 다른 농촌지역 보다 차별에 수위가 낮았다. 오히려 수복지구에서는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어 원주민 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기도 했다.⁴¹

한국전쟁기간 이념에 따른 상호간의 보복을 지켜본 원주민들은 서로의 과거를 치유하는 대신 그리고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대신 ‘침묵’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다.⁴² 제대군인들이 마을의 행정력을 갖게 되면서 이주민들은 북한 영토 당시와 비슷하게 새로운 권력으로 다가 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상호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구술자: 아유, 빨갱이 노릇 하던 사람들이 꽤 들어왔지.

면담자: 그 사람들은 막 그, 이장이라고 하는 김상사가 막- 아유, 저, 이런 거,

구술자: 아이 그건 모르지. 고발하는 건 모르지 뭐. 고발하는 건 뭐,

면담자: 아. 그 김상사란 분은 어차피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구술자: 아, 그렇지. 그, 김상사가 그 사람이 인제 저, 오동리 살았어. 요 다리 건너. 체대해가지구서도 여기 살았어. 거 군정 때 상사가 이장 하던 사람이. 어. 근데 이제 수복해 들어와서 그, 빨갱이 허앵이(하양이) 그래 거이 고발한 사람들 없어.

면담자: 아, 그냥.

구술자: 그지. 그 저, 예, 6.25땐, 아 인민군 들어오면 인공 때 일 안 봐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아군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면담자: 서로, 서로 그냥?

구술자: 서로가 감싸 준 거야. 그럼. 고발해서 누구 죽이고 뭐, 잡혀가고 그런 거 없어. 여기.

면담자: 그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어. 없어.⁴³

원주민들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획득하고 서로 연합하며 살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월남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원주민들과 경쟁관계에 있기보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원의 지역사회를 재구성했다.

철원지역이 안정되어 보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반공사회로의 이미지를 갖고 안보에 민감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 철원 주민들은 군사화 된 지역사회에서 반공적 성향을 견지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경향성을 통해 스스

38 조은, 「분단의 긴 그림자: 월북가족 이야기」,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224쪽.

39 북한의 신해방지구에서도 노동당원과 제대군인들을 지역에 대거 유입시켜 지역사회를 재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준희, 「한국전쟁 前後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촌사회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장 1절.

40 역사와공간연구소, 「백순선 구술자료」(2015년 11월 19일 구술),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2017.

41 철원에서 원주민과 월남민의 사회적 지위와 차별과 관련해서는 출신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김도원의 경우 월남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백순선은 지역 공직사회에 들어가니 원주민으로부터 차별 받았다고 말한다. 역사와공간연구소, 「백순선 구술자료」(2015년 11월 19일 구술), 「김도원 구술자료」(2015년 11월 16일 구술),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2017.

42 역사와공간연구소, 「김규세 구술자료」(2015년 11월 18일 구술),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2017.

43 역사와공간연구소, 「김규세 구술자료」(2015년 11월 18일 구술),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간연구소, 33쪽, 2017.

로 정치성향을 인정받았다. 철원주민 대다수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가운데 서로의 과거를 드러내기보다 ‘침묵’을 통해 안정된 사회를 꾸려 나가는 동시에 군인이라는 절대 우위에 대응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역설적으로 ‘툽날전쟁’의 역사가 안정된 사회를 꾸리는 데 기여했다.

5. 맺음말

철원은 일제 강점기 교통의 요충지로 강원도내 주요도시로 성장했다. 편리한 교통과 금강산전철이라는 호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또한 철원 불이농장의 건설은 일제의 악질적 식민농장이었지만 이를 통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를 철원 주민들은 ‘변영했던 과거’로 기억하고 있다.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이 된 철원은 북한의 통치를 받으며 민주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화에 중심에 있었다.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로 강원도에서 중요한 정치도시가 되면서 주민들은 북한의 정책을 따라갔다. 이 시기를 두고 철원주민들은 강요에 의한 ‘행동’으로 보고 자신을 ‘사과’로 규정하여 반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스로 북한을 거부하면서 반공적 과거를 부각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구가 된 철원은 다양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가 구성되었다. 이 때 월남민은 수복지구 개간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생계의 유지라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철원에 이주하면서 토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뚜렷했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철원에 정착했다. 또한 토지가 없는 월남민의 경우 제대군인과 연합하여 정착촌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원주민, 이주민들이 정착한 철원 지역사회는 이미 군사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과거를 ‘침묵’으로서 인정하고 군인과 갈등하기도

협력하기도 하면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툽날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철원의 원주민들은 이념갈등은 묻어두고 이주민들과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월남민들도 스스로 ‘빨갱이’가 아님을 피난으로 증명했지만 군사화 된 철원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950~60년대 농촌사회에서 월남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양상이 뚜렷했던 것과 달리 이 지역의 인구가 재구성되면서 오히려 월남민으로서 차별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민과 군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생성되면서 지역민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경향신문』
 RG242, SA2007, Item#50, 박준하, 『비망론』, 북조선 로동당 강원도 철원군 당부,
 1950.
 역사와공간연구소, 『철원지역 구술자료』,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 역사와공
 간연구소, 2017.

2. 단행본 및 논문

김성보 편, 『분단시대 월남민의 사회사: 정착, 자원, 사회의식』, 혜안, 2019.
 김아람, 『난민, 경계의 삶』, 역사비평사, 2023.
 김영규 외, 『2007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철원군 지역사자료 조사수집 최종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7.
 김종근, 『1960-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경관: 강원도 철원지역 '재건
 촌'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25, 한국사회사학회, 2020.
 김지나 · 조경진 · 박한솔, 『구철원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 『국토연구』, 국토연구
 원, 2017.6.
 신진숙, 『철원의 문화적 재현을 통해 본 접경도시의 정동적 지형학』, 『통일인문학』
 8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20.
 안영애, 『철원지역의 생활동태: 수복후의 철원지역변천』, 『緣友會報』 10, 이화여자
 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1968.
 이준희, 『한국전쟁 前後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촌사회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근식 · 공민우, 『통일촌 유국리의 조성과정과 공동체적 협력의 난점들』, 『지방사와
 지방문화』 23(1), 역사문화학회, 2020.
 정근식 · 김하정 · 이재용, 『재건촌 생창리의 형성과 마을 정체성의 변화: 생태마을과
 김화 노스텔지어 사이에서』, 『사회과학연구』 59(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원, 2020.
 철원군, 『鐵原郡誌』, 철원군, 1992.
 하지연,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관리 조직을 통해 본 식민지 지주제의 성
 격』,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복지구의 남·북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9.
 함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Abstract

Resettlement and Subsequent Lives of Refugees
in Cheorwon during the 1950s and 1960s

Lee, Jun-Hee |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o recreate the lives of refugees in the post-Korean War Cheorwon region by tracing their resettlement process and relationships with the indigenous population. I examined the demographics of the Cheorwon area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utsiders and nativ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heorwon formed a new society as the influx of outsiders accelera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Buli Farm and special tourism to Kumgangsang Mountain, and grew to become a major region in Gangwon along with Chuncheon. After liberation, it went through the reig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North Korean region, and it has remained an underdeveloped area since the Korean War due to its specificity as a reclaimed area. In particular, after the war, Cheorwon underwent a process of military urbanization, attracting people with diverse pasts, including soldiers and their families, indigenous people (North and South Koreans), and outsiders for socioeconomic reasons. Rather than revealing the conflicts of the indigenous people during the reig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military urbanization of Cheorwon showed a 'silent' acknowledgement of each other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military families) and North Koreans (outsiders).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in Cheorwon in the 1950s and 1960s was not a history of refugees, but rather a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 new Cheorwon community.

Keywords Cheorwon, Refugees, Settlement, Indigenous, Military, Military families, Silence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